

영국진보적근대시문학의 특징에 대한 분석

김 대 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보적인 시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한다. 로동계급은 자본의 철쇄를 마시기 위한 투쟁에 나선 첫 시기부터 시를 전장에 올리는 북소리나 진군의 나팔소리와도 같이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위력한 전투적무기로 삼아왔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303페이지)

영국근대시문학은 자본의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서 일정한 역할을 놀았다.

영국진보적근대시문학의 특징은 무엇보다먼저 주제사상적내용에서 중세시문학에 비하여 새로운 혁신을 가져온것이다.

이 문학의 이러한 특징은 중세의 진보적시문학에 비하여 자본주의사회의 사회악과 모순, 부패상과 죄악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고 자본주의제도를 전복하며 새 사회를 세우기 위한 투쟁으로 호소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성격이 강화된데서 찾아볼수 있다.

중세영국에서는 영국과 서유럽의 문학발전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중세영국의 시문학은 봉건사회현실과 봉건통치배들을 일정하게 폭로비판하면서 봉건제도를 반대하여 투쟁할것을 호소하는 진보적인 사상적내용을 담고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시기 시문학은 아직 내용과 형식에서 많은 제한성을 가지고있었다.

서사시 《베이어울프의 노래》는 환상적수법으로 사람들을 해치는 자연의 괴물들을 무찌르는 용맹한 장수의 공적을 노래하고있다. 작품에서는 당시 현실을 일정하게 반영하고있으나 봉건적군신관계를 강조하고 통치자를 리상화하였으며 사상적내용도 뚜렷하지 못하고 비파학적이며 원시적인 측면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서사시 《켄터베리이야기》는 영국의 그리스도교신자들이 해마다 찾아가는 《성자묘》에 참배하려는 30명의 여행자들이 나누는 이야기형식으로 되어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의 주되는 내용은 중세영국봉건사회현실의 부패상과 모순을 폭로비판하는 사회비판적성격을 띠고있다. 작품에서는 당시 영국에 널리 퍼졌던 종교세력의 허위와 위선, 죄악에 대하여 폭로비판하는 내용이 비교적 명백히 나타나는 반면에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비판은 매우 미약하며 지어 귀족계급을 옹호하는 경향을 나타내고있다.

서사시 《실락원》에서는 비록 일시적으로 실패하여 복귀한 봉건통치계급에게 탄압당하고있지만 굴하지 말고 투쟁할것을 부르조아혁명세력에게 호소하는 사상적내용이 명백히 나타난다. 그러나 서사시에서는 반봉건세력의 대표자인 싸탄이 종당에는 패배하는것으로 묘사하였으며 형상에서도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아니라 종교전설의 허황한 이야기로 간접적으로 전개되고있다.

그러나 영국진보적근대시문학은 주제사상적내용에서 중세시문학의 불철저하고 타협적이며 저조한 경향을 극복하고 자본주의사회의 사회악과 모순, 특권계급의 죄악과 반인민성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였으며 자본주의사회제도자체를 부정하고 그것을 전복하기 위한 투

쟁으로 열렬히 호소하였다.

바이론은 서사시 《차일드 해롤드의 편력기》에서 인민들을 가혹하게 억압하는 온갖 외래침략자들과 압제자들을 때려부시는 투쟁에 나서라고 열렬히 호소하면서 그 투쟁의 승리를 확신하였다.

셸리는 영국인민들에게 착취자들과 억압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며 자유와 해방을 위해 떨쳐나서자고 호소하면서 인민들의 해방투쟁의 승리를 확신하였다. 시인은 시 《서풍송가》에서 온 세계인민들을 투쟁으로 열렬히 불러일으키면서 《오, 서풍이여, 겨울이 왔으니 저 멀리 봄도 뒤따라올것이 아니냐?》라고 승리의 필연성을 노래하였다.

차티스트문학과 프로레타리아문학에서는 진보적량만주의문학에서와 달리 직접 노동계급의 생활과 투쟁을 그려보여주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을 반영하였다.

차티스트문학시인 어니스트 존스는 서사시 《새 세계》에서 반동적인 자본주의사회를 때려부시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반드시 치열한 투쟁을 거쳐야 하며 그것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예술적으로 표현하였다.

차티스트문학시인 에드워드 미드는 시 《증기왕》에서 노동자들의 분노가 터져 함성이 진동하면 황금으로 걸치레한 기생충의 무리도 잔인한 저들의 하느님도 모두 구렁텅이에 처박히고말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영국진보적근대시문학의 특징은 다음으로 시작품들에서 새로운 주인공, 열렬한 투사의 형상을 창조한것이다.

영국중세시문학의 주인공들은 많은 경우 현실에 의거하지 못하고 환상적이고 종교적이거나 인민대중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형상들로 그려지고있다. 대표적으로 서사시 《베이어울프의 노래》의 주인공은 현실적인간이 아니라 환상적인 존재로 묘사되었다.

이 작품에서 그의 적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괴물, 룡과 같은 비현실적존재들이며 주인공과 그 적수들의 능력은 모두 초인간적인것으로 그려지고있다.

그러나 영국근대시문학에서는 현실적인 인간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을뿐아니라 그들을 열렬한 투사의 형상으로 묘사하였다.

영국진보적량만주의문학의 시인들은 작품들에서 영국과 유럽의 반동적인 사회현실에 맞서나서고 외래침략자들의 압제밑에 시달리는 여러 나라 인민들에게 용감하게 투쟁에 떨쳐나서라고 호소하면서 투쟁의 앞장에 선 인물들을 형상하였다.

바이론의 서사시 《차일드 해롤드의 편력기》에서는 침략자 나뿔레옹을 반대하는 싸움에 일떠선 에스빠냐인민들의 투쟁모습을 그려보여주면서 연약한 몸으로 용약 싸움에 나선 한 처녀의 영웅적인 행동을 찬양하고있다. 시인은 한때는 상처만 보아도 무서워 가슴조이고 부엉새우는 소리에도 공포에 떨던 처녀가 지금은 번쩍이는 총검의 숲 헤치며 전장을 확보하는 용사로 자라난것을 환희에 넘쳐 찬양하고있다.

셸리의 서정시 《서풍송가》에서 서정적주인공은 착취받고 억압받는 인민들에게 투쟁의 진리를 깨우쳐주고 해방을 위한 싸움으로 불러일으키는 선각자로, 투사로 그려지고있다.

그러나 진보적량만주의문학이 창조한 주인공들의 형상은 현실과 깊이 련결되지 못하고있으며 인민의 생활과 투쟁에 깊이 뿌리박지 못한 인물들이며 개인영웅주의자들로, 영웅호걸들로 그려진 성격적약점을 가지고있다.

영국근대시문학은 차티스트문학과 프로레타리아문학에서 비로소 노동계급과 근로인민

출신의 주인공,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그 승리를 위하여 목숨바쳐 싸우는 혁명가의 형상들을 내세우게 되었다.

차티스트시인 에드워드 미드의 시 《증기왕》에서는 자본주의제도를 《증기》라는 임금으로 비유하면서 폭군이며 형리인 자본주의착취자, 압제자들을 때려부시는 싸움에 과감히 떨쳐나설것을 격조높이 호소하는 노동자투사의 형상을 그려보여주고있다.

주인공은 천백만노동자들에게 싸움에 나서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일떠서면 착취자들은 반드시 멸망의 구렁텅이에 처박히고말리라고 웨치고있다.

차티스트시인 어니스트 존즈는 시 《노예의 쇠사슬》에서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함없이 자본주의억압과 착취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 최후승리를 이룩할 결사의 각오를 가진 노동자투사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영국진보적근대시문학의 특징은 다음으로 생활과 현실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묘사하고 반영하는데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한것이다.

영국중세시문학에서는 대부분이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존재들이 형상되었다.

서사시 《베이어울프의 노래》에서는 인간의 현실생활과 환상적인 생활이 뒤섞여 그려지고있다. 흐로쓰가왕의 궁전과 주트족의 왕궁 등에서의 생활은 비교적 현실적이나 괴물 그렌들과 그 어미가 사는 호수밑의 동굴, 불을 뿜는 룡이 사는 바다기슭의 동굴 등은 다 초자연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서사시 《농부 피어스에 대한 꿈》에서도 현실이 아니라 꿈의 세계를 그리면서 꿈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다.

서사시 《실락원》에서는 천상세계와 에덴동산, 지옥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허황한 종교전설의 세계와 신이나 천사와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의 생활을 그려보여주고있다.

영국근대시문학은 생활과 현실을 묘사하고 반영하는데서 나타난 이러한 제한성을 극복하고 현실적인 인간생활을 노래하고있다.

제임스 톰슨의 서사시 《사계절》에서는 영국농촌의 여러 자연현상들과 전경들을 펼쳐 보이고 파종, 수확, 고기잡이, 양털깎기 등 농민들의 로동을 노래하였다. 작품에서는 농민들의 로동생활을 진실하게 그리였으며 로동의 즐거움을 찬양하였다. 실례로 《봄》부분에서는 봄철이 되자 황소를 끌고 밭갈이에 나선 농부의 모습과 봄의 환경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로버트 번즈의 시들 역시 주로 영국의 농촌현실과 농촌주민들의 생활을 그려보여주고있다. 그의 시들에서는 가난한 농촌주민들, 물방아간치녀, 보리방아군총각, 농부일가 등과 특권계층에 속하는 귀족지주, 귀부인과 승려들이 등장하며 지어 왕과 왕세자를 등장시키고 그들을 바보로 규탄하고있다.

영국진보적랑만주의시문학에서 생활반영은 폭넓게 전개되어나간다.

바이론과 셸리를 비롯한 시인들은 영국의 부패한 부르주아귀족사회와 뽀르뚜갈, 에스빠냐, 그리스, 튀르키예, 로씨야, 이탈리아, 도이칠란드, 스위스 등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변들과 생활을 반영하였다.

일부 작품들에서는 절해고도의 섬과 지어 신화세계까지도 그리고있으나 종전의 시문학에서처럼 허황한 꿈의 세계나 종교적인 신비의 세계, 거기서 벌어지는 초인간적생활이 아니라 비교적 현실의 모습 그대로 생동하게 그려지고있다.

차티스트문학과 프로레타리아문학에서는 현실생활을 더욱 생동하고 진실하게 묘사하고있다.

이 시문학들에서는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비참한 생활과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여 격렬한 투쟁에 일떠선 그들의 투쟁을 현실 그대로 묘사하고있다.

영국진보적근대시문학의 특징은 다음으로 언어표현이 격동적이고 전투적이며 강한 호소성을 띤 시어들로 씌여진것이다.

서사시 《차일드 해롤드의 편력기》에서 시인은 나뿔레옹의 압제밑에 신음하는 이탈리아사람들에게 《어떻게 헛되이 죽고말수 있느냐/일어나라 너 고트족이여, 일어나라/복수의 칼을 쳐들라》라고 투쟁으로 열렬히 호소하였다.

서정시 《그리스의 아들이여》에서는 튀르크에강점자들을 반대하여 투쟁에 나서라고 그리스인민들에게 격조높이 호소하면서 《장부답게 싸움터로 달려나가자/조국에 보여주라, 그대들의 높은 기개/온갖 사슬 산산이 짓부시는 그 위용을》라고 쓰고있다.

서정시 《단시》에서는 온갖 압제를 반대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 죽음도 두려움없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면서 《자유 위한 싸움터는 어디에나 있거니/총탄과 교수대에 쓰러진다 하여도/사나이여, 영예는 너의것이 되리라》라고 쓰고있다.

시 《증기왕》에서는 노동자들의 피땀을 짜내고 죽음을 강요하는 자본가들을 때려부시는 투쟁으로 열렬히 호소하면서 《때려부시자, 이 폭군을, 사형리 폭군을/천백만 노동자야, 앞으로 나아가자!/그놈의 팔을 쫘팜 동여매자/이 땅에 드리운 암흑이 인민을 삼켜버리기 전에/그대들의 분노가 터져 함성이 진동하면/구렁렁이에 처박히고야 말리라/황금으로 걸치레한 기생충의 무리도!/잔인한 저들의 하느님도!》라고 쓰고있다.

시 《노동자들의 축전송가》에서는 노동자들의 피땀을 짜내고 죽음을 강요하는 자본가들을 때려부시는 투쟁으로 열렬히 호소하면서 《혁명의 거세찬 불길이 타오를 때/부자들도 정권도/피치 못할 복수의 총탄을 받으리라!》라고 계급적원썹들에게 멸망을 선고하고있다.

영국진보적근대시문학이 격동적이며 전투적인 언어표현과 시어들을 리용한것은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계급투쟁, 해방투쟁이 힘차게 벌어지던 당시 현실의 반영인 동시에 창작가들자신이 자본주의영국현실의 부패상을 어느 정도 깨닫고 새 사회에 대한 열렬한 지향과 동경을 자기들의 작품에서 표현한것과 관련되었다.

영국진보적근대시문학은 이처럼 새로운 특징들을 띠고있는것으로 하여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을 침략자와 압제자들을 물리치고 계급적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세우기 위한 투쟁으로 열렬히 호소하는 전투적기치로서의 역할을 일정하게 놀수 있었다.